

올림픽 태극전사들, 전국체전 총출동...실력 점검 나선다



내일부터 부산서 개최...2만8791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사전 경기서 안세영 금·오상욱 2관왕·신솔이 5관왕 올라

BUSAN 2025 2026년아시나고야아시안게임과 2028년로스앤젤레스(LA)올림픽을향해달리는태극전사들이부산에모여 '중간 점검'을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열린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전국체전은 지난 2024 파리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받아 다음 무대인 2026 아시안게임, 2028 LA 올림픽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밝힐 잡이다.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건, 2000년 81회 대회 이후 25년 만이다.

올해 전국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만 8791명(선수 1만9418명, 임원 9373명)이 참가한다.

총인원 기준으로는 지난해(2만8153명)보다 638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50개 종목(정식 48, 시범 2)이 부산시 14개 기초자치단체 7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체조, 펜싱, 카누, 당구, 배드민턴, 수중 핀수영, 태권도 7개 종목은 사전 경기로 치렀다.

'서툼록 권' 안세영(삼성생명)은 부산 대표로 출전해 여자 일반부 단체전 금맥을 쏘고,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다.

체조 신솔이(강원도체육회)는 2년 연속 5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고 전국체전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은 올해에도 전국체전을 빛낸다.

2021~2023년, 3회 연속 전국체전 MVP를 차지한 황선우(강원도청)는 남자 자유형 200m, 개인혼영 2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에 출전해 5관왕에 도전한다.

파리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동메달리스트 김우민(강원도청)도 자유형 400m, 1,500m, 계영 종목 등에 출전해 다관왕을 노린다.

이 밖에도 한국 스포츠를 이끄는 별인 도쿄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2위 우상혁(용인시청),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역도 박혜정(고양시청)도 국내 팬들에게 인사한다.

파리 올림픽 여자 25m 권총 챔피언 양지연(한국체대), 여자 10m 공기소총 금메달리스트 반효진(대구체고), 10m 공기권총 1위 오예진(IBK기업은행) 사격 트리오도 부산 전국체전을 빛낼 스타다.

28일 전역해 프로배구 남자부 소속팀으로 들어가는 임동혁, 김명관 등은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프로배구 여자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정관장에 입단한 미들 블로커 이지운(중앙여고)도 프로 데뷔 전에 전국체전에서 고교 시절 마지막 추억을 쌓는다.

김연경이 이끄는 배구 예능에 출연해 관심을 끈 이진(대구광역시청), 이나연(포항시체육회), 인쿠시, 타미라(목포과학대)는 전국체전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맞붙는다.

박칼린 총감독이 연출을 맡은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17일 오후 6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 성화는 3일 인천 강화군 마니산에서 채화됐으며 1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합화식을 열었다. 151구단, 16개 구·군을 순회하고 17일 아시아드주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돼 전국체전 개회를 알린다.

/연합뉴스



근대5종 국가대표 서창원(전남도청)이 17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가족선수·최고령 등 이색 선수들 기록 잔치 기대

우유 윤웅진 7연패·순천시청 양궁부 4연패 등 도전

전남 '이색 선수'들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전의 무대를 펼친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시에서 전국체전이 진행된다. 각 사·도의 명예를 걸고 17개 시도에서 총 2만8791명(선수 1만9418명, 임원 9373명)이 참가한다. 전남에서도 1187명의 선수단이 부산을 찾는다.

현직 국가대표를 비롯해 다연패에 도전하는 선수, 가족 출신 유망주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을 필두로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정나은(화순군청), 한국 여자복싱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임예지(화순군청), 세대단뛰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 김장우(장흥군청), 근대5종 국가대표 서창원(전남도청)이 메달에 도전한다.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김민수·김나연, 임진수·임세빈(이상 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도 체전에 출전한다.

다연패를 노리는 이들도 있다.

전남 우수의 간판 윤웅진(전남도청·남자일반부 산타56kg)은 7연패를 노리고, 순천시청 양궁부 여자일반부 단체전은 4연패에 도전한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씨름 괴물' 김민재(남자 일반부 장사급)와 광양여고 축구부는 나란히 3연패를 노린다.

가족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이들도 있다.

배드민턴 지도자 부부인 정권(전남기술과학고), 김병현(화순고)과 이들의 자녀인 정다연(화순군청)과 정다환(전남기술과학고)이 총출동한다.

근대5종에서는 김영하(전남도청)와 김강영(전남체고) 형제가 전국체전에 나시고, 야구에서는 정승우와 정재우(목포과학대) 형제의 도전이 펼쳐진다.

핸드볼의 조은솔·조은채(무안고) 자매, 레슬링의 김동찬·김동준(전남체고) '쌍둥이 형제', 사이클의 임지연·임소연(전남체고) '쌍둥이 자매'도 눈길을 끈다.

최고령과 최연소 선수들의 도전도 주목된다.

전남 승마협회의 조한호는 만 67세로 이번 대회에 최고령 타이틀을 차지했다.

제38대 대한승마협회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에서 전남에 동메달을 안겨주기도 했다.

최연소 선수는 만 15세의 이한울(영광법성고)이다. 2025 국제농구연맹(FIBA) U-16 여자 아시아컵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전남 농구 기대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다.

소년체전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유망주들의 도전도 눈길을 끈다.

전국소년체전 육상 400m에서 3연패를 이루며 중등부를 평정한 최지우(광양하이텍고), 전국소년체전 '역도 3관왕' 김태양, 사격 공기소총 부문 개인별 신기록을 작성한 송수희 등 소년체전 스타들의 활약도 관심사다.

/김여울 기자 wool@

안산,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 우승 도전

내일부터 강채영·김종호 출전

한국궁사들이 세계 양궁의 왕중왕을 가리는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 우승을 노린다.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파이널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난징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앞서 열린 네 차례의 월드컵 대회에서 남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참가해 '최고 중의 최고'를 가린다.

개인전 우승자와 함께 월드컵 개인전 성적으로만 산정되는 랭킹 포인트 상위 3명과 개최국 우수선수 1명이 더해져 종목별로 총 8명이 우승 경쟁에 나선다. 동일 국가에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최대 2명이다.

한국에서는 리커브 여자부의 안산(광주은행·사진)과 강채영(현대모비스) 그리고 컴파운드 남자부의 김종호(현대제철)가 대표로 나선다.

안산은 2022년 트라크스칼라 대회 이후 3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 오른다.

안산은 2차 대회 5위, 3차 대회 2위, 4차 대회 6위 등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2025년 월드컵 랭킹 포인트 4위에 자리했다.

강채영은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5 현대 양궁 월드컵 4차 대회 개인전 우승과 함께 이번 파이널 출전권을 얻었다.

강채영은 지난 2019년 모스크바 대회, 2023년 에르모시오 대회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파이널 우승을 노린다.



김종호는 2차 대회 4위를 차지하는 등 시즌 내내 고른 활약으로 랭킹 포인트 7위에 올랐다.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보인 김종호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 첫 월드컵 파이널 우승을 노린다.

한편 리커브 남자부의 김우진(청주시청)과 김제덕(예천군청), 여자부의 임시현(한국체대)과 이가현(대전시체육회), 컴파운드 여자부의 한승연(한국체대)은 출전권을 얻었지만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폰세의 한화 vs 디아즈의 삼성...18년 만에 '가을 대전'

내일부터 프로야구 PO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17일부터 한국시리즈 진출 티켓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을 벌인다.

정규시즌 2위 한화와 4위 삼성은 17일 오후 6시 30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1차전을 치른다.

두 팀이 '가을 야구'에서 맞붙는 것은 2007년 준PO(당시 3전 2승제)에서 한화가 삼성을 2승 1패로 꺾은 이후 18년 만이다.

두 팀은 한화가 빙그레 이글스 시절인 1988년 PO에서 처음 포스트시즌 맞대결을 벌였으며 이후 1990년 준PO, 1991년 PO, 2006년 한국시리즈,

2007년 준PO까지 5번 포스트시즌에서 격돌했다. 공교롭게도 승패는 빙그레-삼성-빙그레-삼성-한화 순으로 주고받아 순서대로라면 이번에는 삼성이 이길 차례다.

그러나 한화는 지난 3일 정규시즌 최정전을 치른 이후 2주간 휴식 및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이번 PO를 준비해온 반면 삼성은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PO를 계속 치르며 달려온 터라 체력 면에서 한화가 앞선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정규시즌 83승을 거둔 한화가 74승의 삼성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한화는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로 이어지는 리그 최고의 '원투 펀치'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다.

폰세는 정규시즌 17승 1패, 평균자책점 1.89,

탈삼진 252개를 뽑아내며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 4관왕 위업을 이뤘다. 와이스도 16승 5패(다승 3위), 평균자책점 2.87(6위), 탈삼진 207개(4위)의 성적을 냈다.

이에 맞서는 삼성 타선의 선봉장은 역시 준PO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르윈 디아즈다.

디아즈는 올해 정규시즌 홈런 50개, 158타점을 기록하며 KBO리그 정규시즌 최다 타점, 외국인 타자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다.

무엇보다 이번 PO는 정규시즌 MVP를 놓고 경쟁할 것이 유력한 폰세와 디아즈의 맞대결 양상으로 팬들의 관심이 더욱 크다.

두 팀의 정규시즌 성적은 8승 8패였고 1, 2차전이 열리는 대전에서는 5승 4패로 한화가 한 번 더 이겼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천영록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

일시 : 2025-09-19(금) ~ 2025-10-26(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Fall in love with Opera

10.17 Fri 19:30

광주세무청악단

GWANGJU SYMPHONY ORCHESTRA

광주시립교향악단 399회 정기연주회

'Fall in love with Opera'

일시 : 2025-10-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